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2. 5(금)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강성조 행정부지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준비 상황 점검** - 예천군 국민체육센터 방문... 사전점검 및 관계자 격려	감염병관리과	
② **이철우 도지사, 영상회의로 설 연휴 도민 안전 꼼꼼히 챙겨** - 도지사 주재 소방관서장 영상회의 개최	119종합 상황실	
③ **도시청년들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속속 정착** - 청년주거단지 40여명 입주, 스마트팜 교육생 8명 딸기 수확 - 안계평야 경관농업, 골목정원, 청년예술촌거리 등 관광육성에도 박차	인구정책과	
④ **경북도 다문화정책, 다문화 인재양성과 공존사회 추진** -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권익증진 강화에 방점 - 국제교류 전문가, 이중언어강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여성가족행복과	
⑤ **경북도, 전국 최초 수층별 실시간 수온 관측 시스템 구축** - 경북 동해안 수층별 수온 정보 24시간 제공, 스마트 어업 기반 마련	어업기술센터	
⑥ **경북도, 도로건설사업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도·위암국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실무자 점검회의 열어 추진방안논의	도로철도과	
⑦ **경북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738억원 투입** - 국비지원 지난해 대비 112억원 증액..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예방 기대	농촌활력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과 장	최 은 정		
			팀 장	이민자	주무관	손승민
		연 락 처	054-880-3862			

강성조 행정부지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준비 상황 점검

- 예천군 국민체육센터 방문 사전점검, 선별진료소 관계자 격려 -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장)은 5일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후보지인 예천군 국민체육센터 찾아 현장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강 부지사를 비롯해 김준호 예천 부군수, 예천군 보건소장등이 참석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접종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강 부지사는 예방접종센터 냉난방시설, 자가발전, 환기,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응급의료기관 연계여부, 주차공간 등이 확보되었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후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백신이 공급되는 즉시 도민들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3월중 1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7월까지 23개소 접종센터를 추가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 시군당 1개소, 포항 2개소)

접종센터에서는 1일 600명이상 접종을 시행하고, 화이자(영하 75℃ ±15), 모더나(영하 20도)처럼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며, 의료인력, 행정인력, 소방・경찰인력 등이 배치된다.

아울러, 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해 부족할 수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의사회, 간호사회와 협의하여 충원하고, 접종센터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노선 접종센터 경유지 추가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후보지 방문 계획

◆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센터 설치 등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21. 2. 5.(금) 14:00～15:30

○ 장　　소 : 예천군 예방접종센터(국민체육센터)

○ 방 문 자 : 행정부지사

○ 내　　용 : 예방접종센터 사전 점검 및 직원 격려

❑ 방문일정

시간별	내　　용	비 고
14:00～14:30	○ 예방접종센터 시설 방문 (예천국민체육센터 점검)	김준호 예천군부군수 윤귀희 보건소장
15:00～15:30	○ 예천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예방접종 준비상황 보고, 직원 격려 등)	

예천군 예방접종센터 현황

- 시 설 명 : 예천국민체육센터 1층
- 위　　치 : 예천읍 충효로 111(예천군청 內)
- 규　　모 : 면적 1,137㎡, 주차가능대수 100대, 접근방법 시내버스 4대
- 시설설치·보유 : 자가발전시설, 냉방·난방시설, 환기시설 구비
- 의료시설 연계 : 예천권병원 5분정도
- 의료·행정인력 : 의사 4명, 간호사 10명, 행정인력 20명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작 성 자	실 장	윤 영 돈		
			소방령	박기형	소방경	양 준
		연 락 처	054-880-6410			

이철우 도지사, 영상회의로 설 연휴 도민 안전 꼼꼼히 챙겨

- 도지사 주재 소방관서장 영상회의 개최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 도내 소방관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소방서장과 설 명절 소방안전대책 및 코로나19 관련 구급이송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서별 중점 화재예방대책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설 연휴 기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구급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며,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중구생의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동안 도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해 판매시설, 물류창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전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상황관리 상담요원을 보강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약국 안내와 의료 상담에 대비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본부에 설치된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도 설 연휴 기간 중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별첨〉

설 명절 소방관서장 영상회의 개최 계획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2. 5.(금) 14:00 ~ 15:00

※ 설 연휴 : 2. 11.(목) ~ 2. 14.(일) / 4일간

○ 방　　법 : PC영상회의시스템(Tomms) 활용 비대면 회의

○ 참　　석 : 31명　※ 복장 : 기동복

- (도　청) 도지사(주재),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과·실·단장

※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감염병관리과장 참석

- (소방서) 19개 소방서장　※ 울릉119안전센터장 참석

○ 주요내용 :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대책 및 추진사항 점검

2 세부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인사말씀**	**도지사**
14:05 ~ 14:10	5′	▸ **설 명절 소방안전대책 총괄보고**	119종합상황실장
14:10 ~ 14:50	40′	▸ **소방서별 설 명절 소방안전대책 보고** (서별 2분 이내, 중점대책 중심으로)	소방서장
14:50 ~ 14:55	5′	▸ **현안사항 질의 응답**	**도지사**
14:55 ~ 15:00	5′	▸ **마무리 말씀**	**도지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작성자	과 장	유 정 근		
			팀 장	김준태	주무관	하승현
		연락처	054-880-4516			

도시청년들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속속 정착

- 청년주거단지 40여명 입주, 스마트팜 교육생 8명 딸기 수확 -
- 안계평야 경관농업, 골목정원, 청년예술촌거리 등 관광육성에도 박차 -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추진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사업초기 반신반의 하던 시각도 많았지만 삼삼오오 거리를 다니는 청년들과 새롭게 단장한 점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소멸 극복, 행복마을 만들기의 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마이니치신문에서 의성 현지 취재를 펼치는 등 해외언론의 관심도 끌고 있다.

지난해 준공한 4ha 규모의 스마트팜에서는 청년농부 43명이 딸기 실습교육이 한창이고 창업한 8명의 청년들이 생산한 딸기는 전국각지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의성청년딸기’는 정직한 청년들이 생산한 친환경 딸기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도 높다.

청년들이 창업한 가게들도 잘 자리 잡았다. 수제맥주 공방인 ‘호피홀리데이’, 유럽식 파스타 식당인 ‘달빛레스토랑’, 지역 농산물 판매점인 ‘진팜’이 오픈한 소보안계로는 ‘안리단길’로 불리우며 새로운 청년 거리로 거듭나고 있으며 ‘고라니북스’, ‘비츨담다’ 등이 창업한 안계 시장길은 청년예술촌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도시청년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한 수제비누 공방 ‘프로젝트 담다’와 안사면 빈 우체국을 활용한 퓨전요리점 ‘안사 우정국’ 청년들도 창업에 나서 지역의 활력이 되고 있다.

청년들의 실속형 보금자리도 대부분 완공되었다. 경북도청 이전시 임시숙소로 쓰던 컨테이너 하우스는 새단장하여 청년농부 22명이 입주

했으며 청년들의 요구로 9동을 추가할 계획이다. 안계시장 뒤 모듈러 주택 18동은 모집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되었다. 빈 여관을 리모델링한 청년쉐어하우스는 청년단체인 '메이드 인 피플'에 위탁을 맡겨 향후 게스트 하우스, 청년 모임방 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작년 1월에 체결한 경상북도-한국토지주택공사 상생협약의 결과로 농촌 면단위에서는 드물게 LH-청년행복주택 140세대도 건립된다. 주택건설승인과 설계를 거쳐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설계가 한창인 안계행복플랫폼과 안계 전통시장현대화, 지난 8월 리모델링과 의료진을 보강한 영남제일병원, 11월에 개소한 안계초 KT-AI스쿨 그리고 올해 6월에 새롭게 개원할 안계하나국공립 어린이집 등 이웃사촌 시범마을 문화·복지 인프라도 착착 진행중이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도 다양하게 시도된다. 지난 10월 안계평야에 파종한 우리밀 2ha과 유채꽃 10ha의 경관농업단지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힐링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미건조한 농촌 골목길은 예쁜 꽃과 나무를 가꾸어 정감 넘치는 골목정원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은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청년농부 스마트팜, 청년주거단지 의성 펫 월드 등 하드웨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었다." 며, "올해부터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지속가능성과 유동 인구 확보를 위해 경관농업단지, 골목정원, 청년예술촌거리, 식당·주차·간판 개선 등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드는 이웃사촌 마을 조성에 주안점을 둘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여성가족행복과			
		작 성 자	과 장	신 동 보		
			팀 장	김건우	주무관	정영숙
		연 락 처	054-880-4548			

경북도 다문화정책, 다문화 인재양성과 공존사회 추진

-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권익증진 강화에 방점 -
- 국제교류 전문가, 이중언어강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경상북도는 금년도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다문화가족의 권익증진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언어와 문화적 강점을 가진 인재로 보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까지 도단위로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 250여명을 이중언어 선생님으로 육성하여 이들 중 110여명이 방과 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도민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40여명의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전국 최초로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제교류 전문가로 배출하여 향후 이들의 활동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외국음식 판매로 2억 1천만원, 개인무역으로 3억 5천만원, 외국어교육으로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 대학교에서 어학 집중캠프를 실시하였고, 경북도에서 주최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도 개최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해외이동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베트남 칸화

교육대학교 베트남어과 교수와 화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전국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대회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자녀들에 대해서 현직교사를 통한 비대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비교사인 대학생들을 멘토로 투입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3개소의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일부시설은 보강할 계획이며, 위기 다문화가정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도단위 SOS긴급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교육의 공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11월 공동모금회에 배분사업을 제안하여 12월에 비대면 스튜디어 부스와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 1월부터 관련 장비구축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비대면 교육환경이 조성되면 질 높은 지역맞춤형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별 교육영상과 함께 실시간 교육도 가능할 예정이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경북도의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12월에는 우리도의 이중언어강사사업이 우수시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문화가족 인재양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 고 전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			
		작 성 자	소 장	권 기 수		
			과 장	최진석	담 당	이재일
		연 락 처	054-240-0320			

경북도, 전국 최초 수층별 실시간 수온 관측 시스템 구축

- 경북 동해안 수층별 수온 정보 24시간 제공, 스마트 어업 기반 마련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소장 권기수)는 전국 최초로 수층별 수온을 앱(APP)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수온측정 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어업기술센터는 표층 수온만 제공하는 현재 기존 수온 정보시스템으로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층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수층별 수온 관측 시스템 개발을 착수, 2020년 8개소의 연안 지점에 대해 실시간 수층별 수온관측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하였다.

개발된 실시간 수온 관측망 시스템은 크게 송신부·수심별 수온센서·케이블·데이터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수심 50M 수온정보를 해양에서 육지까지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구성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해양수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수온 관측장비의 문제점(고가 및 대형화)을 저가 및 소형화로 개발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시스템의 확산 및 보급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2021년에는 관측지점을 3개소 증설하여 11개 연안 지점에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실시간 수층별 수온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환경 변화 연구, 냉수대, 고수온 등 이상 수온으로 인한 수산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어업인이 요구하는 해양수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어업인들의 스마트 어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별첨〉

참고자료

실시간 수온 관측망 구축 사업

◆ 고·저수온 등 이상해황 발생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빈발
◆ 실시간 정보 제공에 대한 어업인의 요구 증대
◆ 수온을 실시간으로 관측, 제공하는 보급형시스템 구축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계속

○ 사업내용

• 보급형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시범 운영
  - 수심 : 표층 - 50m (관측 센서 6개, 지역별 환경에 따라 관측 수심 조절 가능)
• 보급형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추가적 개선 및 현장보급 확대

'20년 추진실적

○ 사 업 량 : 8개소(포항4, 경주1, 영덕2, 울진1)

• 포항 청하 · 호미곶 · 구룡포 · 장기, 경주 감포, 영덕 대진 · 구계 울진 후포

○ 사 업 비 : 113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 관내 실시간수온관측시스템 설치 지점 지정 및 설치
- 8개 거점 수심확인 및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설치

➡ ’ 19년 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 경북 씨그랜트 센터+ 어업기술센터 연구 개발

➡ ’ 20년 시범사업 착수(자체 시스템 구축)

• 거점별 실시간수온관측시스템 유지 보수
• 실시간수온관측시스템 서버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21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08백만원(도비) 본소 63, 영덕 45,

○ 사업내용 : 수온관측장비(3대), 서버구축, 유지관리 용역 등

사 진 대 지



수층별 실시간 수온 측정 시스템 모식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			
		작성자	과 장	이 성 균		
			사무관	서 성 교	주무관	박 상 영
		연 락 처	054-880-3982			

경북도, 도로건설사업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도 · 위임국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실무자 점검회의 열어 추진방안논의-

경상북도가 지방도 및 위임국도 사업 재정 신속집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도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와 위임국도사업에 대한 예산신속집행을 위해 사업소 담당과장, 팀장,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지난 4일 재정신속집행 실무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1년도 지방도·위임국도사업 추진계획 및 월별 재정집행 계획과 상반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목표는 해당 사업비 866억원 중 상반기 중에 70%를 집행하는 것으로 최소 606억원을 집행완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이 부진한 신규사업지구에 대해 신속한 사전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로 조기에 착공하여 선급금과 기성금이 상반기 중에 최대한 지급 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차수발주를 완료한다. 부진사업지구는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만회대책을 수립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편입토지 보상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고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 관급자재에 대한 선고지제도, 약식기성금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도내 건설업계 경기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규모 SOC 사업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5(금)】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촌활력과			
		작 성 자	과 장	박 준 로		
			사무관	김수용	주무관	조재훈
		연 락 처	054-880-3403			

경북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738억원 투입

- 국비지원 지난해 대비 112억원 증액...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예방 기대 -

경상북도는 노후된 저수지 및 용수로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38억원을 투입한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사업으로 68지구 638억원, 자체보조사업으로 113지구 1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국비 112억 원을 더 배정받아 사업 추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개보수 및 비상수문 설치, 흙수로이거나 노후된 용수로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농민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노후된 저수지로 인한 재해 우려를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규 국비사업 23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766억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속사업 20지구는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도분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준공지구인 25지구는 금년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예방이 될 것”이라며 “금년도 확보된 국비사업에 대하여는 영농기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마무리하여 농업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국비확보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